

1900~1920년대 한·일 <두더지(쥐) 혼인> '동화' 비교 연구

엄희경*

<차 례>

1. 문제제기 :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에 대한 새로운 질문
2. 13세기, 17세기 최초의 한·일 '문헌설화' <두더지(쥐) 혼인>
3. 1900~1920년대 외국인의 '조선설화집' <두더지(쥐) 혼인>
4. 1900~1920년대 한·일 '동화' <두더지(쥐) 혼인>
5. 나가며 :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 '전래동화' 장르에 관한 새로운 시각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00~1920년대 한·일 '동화' <두더지(쥐) 혼인>의 비교 연구로, <두더지(쥐) 혼인> 설화가 지닌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이 한·일 '동화'에 어떻게 계승·변용되었는지를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설화의 동화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첫째, 한·일 고문헌에 기록된 <두더지(쥐) 혼인> 설화의 주제와 특징을 살폈다. 둘째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 '전래동화'에 영향을 끼친, 1900~1920년대 외국인들의 '조선설화집'에 실린 '설화'의 화소를 살폈다. 셋째 1900~1920년대 한·일 '동화' 5편을 화소별로 정리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폈다. 한국의 최남선과 방정환, 그리고 일본의 이와야 사자나미, 마츠모토 쿠미, 미야하라 고이치로가 설화를 '동화'로 다시쓰기 한 구체적 양상을 조명하였다. 특히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은 이시기의 원천에 대한 인식과 다시쓰기의 동기는 '전래' 동화였고, 저본의 다시쓰기 과정은 언어적 변환을 거친 '번역' 동화였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 <두더지(쥐) 혼인> 설화를 개작한 한·일 동화의 비교 연구를 계기로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에 외국인이 수집 개작한 조선설화집과 외국 동화의 번역·번안이 한국 '전래동화' 형성에 끼친 영향과 상호 관련성 연구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아동문학교육과 강사

[주제어] <두더지(쥐) 혼인>, ATU 2031C형, 다시쓰기,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최남선(崔南善), 방정환(方定煥),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마츠모토 쿠미(松本苦味), 번역동화, 전래동화

1. 문제제기 :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에 대한 새로운 질문

아동잡지 『어린이』(1924. 1)에 발표된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은 우리 설화를 근대의 어린이 독자에게 맞게 다시 쓴(재화再話) ‘전래동화’일까? 아니면 외국 설화를 번역한 ‘번역동화’일까? 오늘의 독자들은 전래동화집이나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출간된 <두더지(쥐) 혼인>을 접해왔기에 대부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설화라고 생각할 터이다. 필자는 방정환의 동화를 번역, 옛이야기 재화(전래동화)¹⁾, 창작으로 나눠 살피면서 「두더지의 혼인」을 ‘전래동화’로 분류한 바 있다.²⁾ 2000년대 초반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옛이야기분과에서는 「두더지의 혼인」은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분포된 설화가 아닌 데다 이본이 거의 없는 설화로서는 이야기 구조가 완벽하여 외국 동화의 ‘번안’ 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³⁾

일찍이 장덕순은 아르네-툼슨(Aarne-Thompson)의 민담 유형 분류에 따라 <두더지(쥐) 혼인>이 세계적으로 분포된 ‘Stronger and Strongest’로,

-
- 1) 최원오는 최근 ‘옛이야기’라는 용어가 아동문학과 초등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전래동화’가 내포하는 식민지성, 포괄하는 범위의 불명료성을 시정하면서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게 된 현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구비전승되어 온 조선설화를 ‘고래동화(古來童話)’ ‘우리동화’ ‘조선동화’로 지칭하던 것이 1930년 11월 14일자 『매일신보』에서 ‘전래동화’라는 용어가 처음 확인되고, 그 뒤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학예사, 1940) 이후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들이 폐기되고 ‘전래동화’로 단일화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화’라는 용어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전래동화’라는 용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의해 식민 지배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 옛이야기가 마치 전래동화와 동일한 용어인 것처럼 기술해 놓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최원오, 『옛이야기와 전래동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지음, 『100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아동청소년문학』, 창비, 2023, 8(1판 2쇄), 224~227쪽).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에 등장한 역사적 장르 용어로 장르관을 오랜 세월 담았던 명칭을 지칭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동화’ ‘전래동화’라는 장르명을 사용한다.
 - 2) 엄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 박사는문, 2007;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14, 232쪽.
 - 3) 옛이야기 분과, 「방정환 이야기의 맛과 힘」, 『동화 읽는 어른』, 어린이도서연구회, 1999. 5, 31쪽.

일본의 옛이야기에도 '쥐의 결혼'이라는 설화가 있다고 밝혔지만,⁴⁾ 오랫동안 <두더지(쥐) 혼인> 설화의 비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인덕의 「'두더지 혼인' 설화의 인(印)·중(中)·한(韓) 비교 고찰」(2005)에서 본격적인 세계 설화 비교 연구의 성과를 내놓았다.⁵⁾ 이후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가 인도의 『판차탄트라』에 실린 「암쥐 이야기」가 세계 각지로 전승·변용된 광포설화(廣布說話)이자 누적적인 형식담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경우 흥만종의 『순오지』 이전에도 고상언의 『효빈잡기』나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00년대~2010년대에는 인도·중국·한국·일본의 <두더지(쥐) 혼인> 설화 비교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시기였다. 학습자 인성교육 관점에서의 연구, 문학 치유 관점에서의 연구, 그리고 옛이야기 그림책을 대상으로 <두더지(쥐) 혼인> 설화를 다룬 연구들도 나왔다.⁶⁾

최근까지의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두더지(쥐) 혼인>은 세계 설화 분류 표준이라 할 '아르네-톰프슨-우터의 설화 유형 분류 체계'(ATU)에서 ATU 2031C형에 속한 이야기로,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지닌 설화이다. 연구 성과의 확산으로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질문과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세 시기 동아시아 국가에 전승되고, 20세기 초 한국과 일본의 근대 작가들에 의해 다시쓰기 된 이 이야기에 대해 '전래'와 '번역' 여부를 묻는 일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보다는 외국 설화의 변안이든

4)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25~27쪽.

5)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인(印)·중(中)·한(韓) 비교 고찰」, 『어문연구』 48호, 어문연구학회, 2005.

6) 강영순, 「야담의 우연적 소통 고찰」, 『한민족어문학』 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琴榮辰, 「東アジアにおける「鼠の嫁入り」の享受」, 『日語日文學研究』 7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김근태, 「'쥐(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 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맹상염(孟祥艷), 「한·중 '쥐 혼인' 설화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13; 류정월, 「두더지 혼인 설화의 해석적 코드」, 『기호학연구』 40집, 한국기호학회, 2014; 최미숙, 「옛이야기 그림책의 시각화 연구 - <방귀쟁이 머느리>와 <두더지(쥐) 혼인>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6; 임유정,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읽기 지도 방안 연구 - <두더지의 혼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6.

우리 설화의 재화이든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이 다시쓰기를 한 작품이니 영향을 준 저본(底本)을 탐색하는 일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방정환이 어린 시절에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 기억에 의존해 다시쓰기 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시쓰기의 저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는 방정환이 기록으로 전해지는 앞선 시기의 문헌 또는 동시대의 작품을 읽고 다시쓰기 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보다 채록 또는 발표 시기가 앞선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자료의 영향을 받았고, 변용이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쓰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일 설화 〈두더지(쥐) 혼인〉이 한·일 ‘동화’로 다시쓰기 되는 과정에서의 변모와 영향 관계를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한·일 두 나라의 옛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두더지(쥐) 혼인〉 설화이다. 인도에서 유입된 이야기라 해도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 오랜 시기 토착화 과정에서 변용이 일어나고 기록문학으로의 첫 정착 형태는 이후의 전승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둘째, 1900~1920년대에 서양의 선교사나 동양학자 또는 일본인 민속학자들이 수집·기록한 조선설화집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 설화이다. 셋째, 설화의 동화화를 엿볼 수 있는 1900~1920년대 시기의 한·일 아동문학, 즉 어린이를 독자 대상으로 설화를 다시쓰기 한 ‘동화’이다. 한국의 경우 해당 시기의 신문과 잡지를 살펴본 결과 ‘설화’ 또는 ‘동화’로 소개된 〈두더지(쥐) 혼인〉은 많지 않았다. 한·일 동화나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한·일 옛 문헌 또는 1900~1920년대의 조선설화집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주요하게 검토할 것이다. 1900~1920년대 한·일 〈두더지(쥐) 혼인〉 ‘동화’가 무엇을 어떻게 수용 변용했는지 대략의 흐름과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 2000년대 이후 아시아의 〈두더지(쥐) 혼인〉 설화 비교 연구는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기존의 설화 비교 연구

에서 1900~1920년대에 외국인이 수집·개작한 조선설화집과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 그리고 한·일 '동화'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잡지와 총독부 교과서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은 이후 설화의 전승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록문학이다. 즉 한국의 구전설화 자료 중 가장 빠른 채록 시기로 확인되는 '1932년' 백남승 구연자의 구연 자료⁷⁾는 1924년 발표된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이나 1926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교과서에 실린 「두더지 婚姻」보다도 6~8년이나 늦은 시기에 채록된 자료이다. 구연자 백남승의 연령이나 교육 상황 등 기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린이』에 실린 방정환 작품이나 교과서 수록 이야기를 직접 읽고 전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접 읽었을 가능성과 함께 그 이야기를 보고 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기억한 이야기에 이야기꾼 나름의 추가, 삭제, 수정을 거쳐 구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1910~20년대 아동잡지에 실린 동화와 조선총독부 교과서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은 자료적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설화 비교 연구에서 배제되어 온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는 문헌 고증 방법을 취했으며 ATU 2031C형에 속하는 <두더지(쥐) 혼인>의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국가)적 특수성을 살피기 위해 한·일 <두더지(쥐) 혼인> 설화와 동화를 화소별로 정리하였다.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정환이 다시쓰기 한 「두더지의 혼인」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이 우리 설화의 어린이용 동화로의 다시쓰기 작업인지, 일본 설화 또는 동화를 번역한 다시쓰기인지, 또는 일본어로 기록된 설화나 동화가 저본이었지만 '조선 동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당대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설화를 들려주기 위해 토착화 번역을 시도했던 것인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1900~1920년대 한·일 <두더지(쥐) 혼인> '동화' 비교 연구이지만, 한·일 <두더지(쥐) 혼인> '동화'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즉 설화의

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제8권, 전라북도 편 II, 평민사, 1991, 327~328쪽.

동화화 과정을 살피는 데 좀더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내선' 동화의 관점이 한창 부각되던 시기에 한국의 <두더지(쥐) 혼인> '동화'가 참조했을 기존 자료와의 영향 관계를 살피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한·일 <두더지(쥐) 혼인> '동화'가 <두더지(쥐) 혼인> 설화의 세계적 보편성과 고유의 민족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폈다.

<두더지(쥐) 혼인> 설화를 개작한 한·일 동화의 비교 연구가 계기가 되어 한국 아동문학 형성에 외국인 이 수집 개작한 조선설화집과 외국 동화의 번역·번안이 한국 '전래동화' 형성에 끼친 영향과 상호 관련성 연구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2. 13세기, 17세기 최초의 한·일 '문헌설화' <두더지(쥐) 혼인>

한국의 문헌에서 <두더지(쥐) 혼인> 설화가 처음 실린 것은 조선 중기 문인인 고상안(高尚顔 1553~1623)의 『효빈잡기(效嘸雜記)』에 실린 「언서혼인(鼯鼠婚姻)」이다. 『효빈잡기』의 정확한 저술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618년~1623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⁸⁾ 1621년 또는 1622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야담집 『어우야담(於于野談)』에도 '쥐 혼인' 이야기가 실렸다. 고상안과 유몽인 두 저자의 이야기에서 구혼자, 구혼 대상자, 저자가 초점을 둔 주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고상안의 『효빈잡기』에서는 두더지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구혼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태양-달-구름-바람-돌부처-두더지'로 설정하였다. 두더지는 딸의 신랑감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돌부처'에게는 특별히 '매과'를 보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에서 작가는 "이 때문에 세상에서는 딸을 낳아 혼처를 구함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가 끝내는 처지가

8) 김남형은 『효빈잡기』의 저술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속에 인목대비 폐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향리에 은거했던 1618~1623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완성연대인 1622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남형, 「태촌 고상안의 『효빈잡기』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0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284쪽)

서로 비슷한 곳으로 시집보내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두고 ‘두더지의 혼인’이라고 한다.”⁹⁾고 하여 배우자 선택에서의 과욕에 대한 경계와 ‘두더지 혼인’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남형은 이 이야기를 외척의 세도가 극심했던 인종(仁宗 재위 기간: 1544년~1545년), 명종(明宗 재위 기간: 1545~1567년) 사이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생겨난 우화로 보고, 신분을 망각하고 국혼을 통해 권력을 잡아 보려는 자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우화로 평가하였다.¹⁰⁾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는 “예로부터 국혼(國婚)으로 인해 화가 미친 일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는 두더지가 자기 무리와 혼인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니, 무슨 말인가?”로 시작해 이야기의 마무리에서도 “대저 사람으로 분수를 알지 못하고 감히 국혼을 하여 사치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려하다가 끝내 남에게 재앙을 미치게 하는 자는 바로 두더지만도 못한 것이리라.”¹¹⁾라는 교훈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현대어 번역서에 따라 이 논문에서도 ‘두더지’라고 인용했지만, 원문에는 고상안의 ‘언서(鼯鼠-두더지)’와 달리 『어우야담』에는 ‘야서(野鼠-들쥐; 멧밭쥐)’¹²⁾로 되어 있다. 유몽인은 결혼 중에서도 특히 ‘국혼’을 직접 언급하며 분수를 모르고 사치했던 당시의 세태를 풍자 비판하기 위해 ‘쥐 혼인’ 이야기를 끌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이야기에서는 **쥐의 아들**이 신부감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혼 대상자로 ‘하늘-구름-바람-과천의 돌미륵-쥐’로 설정되어 있다. 구혼자가 두더지 딸이 아닌 들쥐의 아들이고, 구혼 대상자 중 돌미륵에 ‘과천’ 지역을

9) 고상안 지음, 김남형 역주, 『국역 효빈잡기』,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115쪽.

10) 김남형, 앞의 논문, 306쪽.

11)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96~97쪽.

12) **언서(鼯鼠)** 「명사」: 『동물』 **두더지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9~18cm, 꼬리의 길이는 1~3cm이며 몸은 어두운 갈색 내지 검은 갈색이다. 앞뒤 다리는 짧으나 발바닥이 넓고 커서 삼모양이며 발가락은 다섯 개씩이다. 귀와 코는 예민하나 눈은 퇴화하여 매우 작다. 땅속에 굴을 파고 살며 지렁이, 곤충의 애벌레 따위를 잡아먹는다. =두더지.

야서(野鼠) 「명사」: 『동물』 **젓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5~7cm이며, 위쪽은 갈색이고 아래쪽은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끝은 살이 드러나 있다. 얇은 산의 습지, 채소밭에 사는데 한국, 일본, 시베리아, 중부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멧밭쥐. (‘언서’ ‘야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특정한 것이 특이점이다.¹³⁾ 이후의 구전설화나 전래동화에서 ‘쥐 아들’과 ‘과천 돌미륵’으로 전승되는 것은 『어우야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이처럼 한국의 고문헌인 『효빈잡기』나 『어우야담』에는 ‘두더지’ ‘들쥐’로 설정되어 있다.¹⁵⁾ 우리의 <두더지(쥐) 혼인> 설화가 인도의 『관차탄트라』의 「암쥐 이야기(Mouse-Maid Made Mouse)」로부터 영향을 받았더라도¹⁶⁾ 원래 이야기의 ‘생쥐’에서 ‘들쥐’나 ‘들쥐’로 변화했고, 인도 이야기에서 구혼 대상자 중에서 구름보다 더 강한 구혼 대상자였던 ‘산’이 ‘돌부처’(또는 ‘과천 돌미륵’)로 변했다.¹⁷⁾ 더욱이 인도의 이야기에서는 ‘본성(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제를 강조했는데, 우리 옛 문헌에서는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로 변화했으며, 당대의 결혼 세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강화되었다. 또한 주제의 측면에서 종교적 색채는 거의 사라졌지만 구혼 대상자 화소 중 ‘산’에서 ‘돌부처(돌미륵)’로 변한 데에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불교적 영향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고문헌에서 ‘쥐의 혼인’ 이야기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무주 이치엔(無住一圓)의 불교설화집 『샤세키슈(沙石集)』(1283년, 10권 10책)

13) 과천의 돌미륵은 ‘과천 보광사의 문원리사지(文原里寺址) 석조보살입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돌미륵은 과천시 문원동 15-166번지에서 옮겨 온 것으로 높이가 1.7m 크기의 석조보살상이다. 현재는 보광사 경내(과천시 갈현동 126-21번지)에 위치해 있다. 왼손은 가슴에 대어 옆쪽 봉오리를 잡고 오른손은 왼손을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머리에는 둥근 갓 모양의 덮개를 쓰고 있는 형태로 봐서 미륵상이라고 한다. 고려 말~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https://www.heritage.go.kr>) - 경기도 문화재자료 참고)

14) 김정설, 「쥐의 구혼」, 『평양전설』(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0)에는 ‘막내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야마사키 겐타로(山崎源太郎), 「쥐의 혼례 鼠の婚禮」, 『조선의 기담과 전설 朝鮮의奇談と傳説』(유허출판사, 1920)에는 ‘과천의 돌미륵’으로 되어 있다.

15) 홍만종의 『순오지』(1678)에도 ‘인서혼(廳鼠婚)’이라 하여 ‘두더지’의 혼인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는 1820년대 초 문헌인 『효빈잡기』나 『어우야담』보다 꽤 시간이 흐른 후대의 문헌설화이다. 이는 문헌에서는 한·일 두 나라의 최초의 문헌설화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 설화를 주요하게 다루었기에 『순오지』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 『효빈잡기』와 『어우야담』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두더지’ ‘쥐’의 설정, 주제의 측면에서 비교를 위해 함께 다루었다.

16) 「암쥐 이야기」는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찬드라마니 영역, 서수인 옮김, 『관차탄트라』, 태일출판사, 1996, 286~292쪽 참조.

17) 우리 설화 중에서 ‘산’이 화소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경남 강화군 길상면에서 채집된 <쥐의 혼인> (『한국구비문학대계』 1-7, 1982, 310쪽)과 산 변형인 ‘모란봉’이 나오는 『평양전설』(김정설, 앞의 책)에 실린 ‘쥐의 구혼’ 두 편 정도이다.

이다.¹⁸⁾ 8권의 제14화 「빈궁추출사(貧窮追出事)」라는 글에 ‘쥐의 혼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 범사와 제자들이 사찰에서 곤궁한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일화 5편을 소개한 가운데, ‘쥐 혼인’ 이야기도 실려 있다. 쥐 부부가 딸 쥐의 혼인 상대로 ‘일천자(日天子, 태양)’ ‘흑운(黑雲, 먹구름)’ ‘산풍(山風, 산바람)’ ‘축지(築地-매립지)¹⁹⁾’를 찾아 나섰다가 마침내 ‘쥐’를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말미에 “이것도 **정해진 과보**라 할 수 있겠지요”라고 해서 5편의 일화를 통해 “**당래(當來; ‘미래’의 뜻)의 과보(果報)는 금생의 업이다**”라는 **불교적 주제**를 언급하였다. 무주 이치엔은 책의 서문에서 “경전이나 논서의 분명한 문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선현들이 남긴 일깨우는 말들을 끌어왔다”²⁰⁾고 밝혔는데, 이 이야기는 ‘정해진 과보’라는 주제에 맞는 깨달음을 주고자 인도의 『판차탄트라』에 실린 「암쥐 이야기」의 내용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의 고문헌에 실린 이야기와 비교할 때, 인도 『판차탄트라』와

18) 전 세계적 설화 분류 표준이라 할 ‘아르네-토포슨-우터의 설화 유형 분류 체계’(ATU)에서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는 **ATU 2031C형**이다. ATU 2031형은 ‘Stronger and Strongest’ 유형의 이야기이고, **ATU 2031C형은 ‘딸의 남편으로서 가장 강력한 존재 Mightiest Being as Husband for the Daughter’**라는 유형의 이야기로, 우리 설화에서는 <두더지(쥐)의 혼인> <두더지(쥐) 사윗감> <두더지(쥐) 사위 찾기> <쥐의 시집감> 등으로 불리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대표 이야기로 아프리카 민담 「딸 쥐의 남편 (The Husband of Rat’s Daughter)」과 일본 민담 「쥐의 신랑 (Mole’s Bridegroom)」 두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민담도 ‘옛날 옛날에 일본에서~’로 시작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민담 소개에 앞서 이 유형의 이야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한 글을 참고하면, “토포슨, p.232에서는 이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문학적이며 동양의 이야기 모음집에서 발견되고 중세 문학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말한다. **이케다, p.318에는 무주(無住) 스님이 편찬한 불교설법의 원천인 13세기 일본 전집 『사세키슈(沙石集)』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일본에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고 구전 전통으로 기록되었다. 토포슨과 로버트, p.169에서는 8개의 인도 변종을 참조한다. 여기에 실은 텍스트에 나오는 두더지보다는 **생쥐나 쥐가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각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경우가 많다.**”라고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의 이케다는 이케다 히로코(池田弘子)로 <일본의 모티프 색인집 (日本昔話話型カタログ)>을 마련한 인물이다.

미주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guides.missouri.edu/c.php?g=1083510>

무주 이치엔(無住一圓)의 불교설화집 『사세키슈(沙石集)』에 실린 「빈궁추출사(貧窮追出事)」는 ‘옛이야기와 다매체연구소’의 김환희 선생님께서 자료를 찾아 제공해 주셨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19) 축지(築地)는 ‘매립지(築地; 쌓을축 땅지/건축물축 땅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일본 도쿄도 주오구의 지명으로 ‘쓰키지(築地)’가 있는데, 원래 매립지로 외국인 거류지와 해군양성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인도의 『판차탄트라』의 ‘산’이 ‘땅을 쌓은 것(매립지)’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20) 무주 이치엔 지음, 정친구 옮김, 「서문」, 『모래와 돌』, 소명출판, 2008, 14쪽.

는 다른 주제로 나아갔지만 ‘쥐’의 설정과 ‘산’의 변형으로서의 ‘축지-매립지’의 설정, 주제에서의 종교적 색채는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관차탄트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용된 <두더지(쥐) 혼인> 설화는 일본에서는 13세기에, 한국에서는 17세기에 ‘문헌설화’로 기록되어 꽤 이른 시기에 정착, 토착화되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두 나라에서 모두 자국의 설화로 인식하며 구연 현장에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문헌설화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 화소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면서, 형식담이라 구연 과정에서도 크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1900~1920년대 외국인의 ‘조선설화집’ <두더지(쥐) 혼인>

한국의 경우 <두더지(쥐) 혼인> 설화는 근대 전환기에 최남선과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용 동화로 소개되었다. 최남선은 1914년에, 방정환은 1924년에 각자 자신들이 편집 발행한 아동잡지에 <두더지(쥐) 혼인> 동화를 발표했다. 최남선과 방정환은 이 당시 ‘조선 설화’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일본 유학생이기도 했다. 『어우야담』이나 『순오지』는 워낙 잘 알려진 문헌이라 최남선과 방정환이 여기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이 17세기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 속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 어린이용으로 다시쓰기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1900~1920년대에 외국인 선교사나 일본인 민속학자들이 채집, 기록한 ‘조선설화집’ 속에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가 실렸다. 근대 지식인인 최남선과 방정환이 1900~1920년대에 외국인 선교사나 일본인 민속학자들이 채집, 기록한 설화집의 <두더지(쥐) 혼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00~1920년대에 외국인들이 수집, 기록한 조선설화집에 <두더지(쥐) 혼인> 설화가 실린 것은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4편이 발견된다. 최인학의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myong ji Uni, 1979)을 통해 이 설화가 야마사키 겐타로(山崎源太郎)의 『朝鮮の奇談と傳説』(ウツボヤ書房, 1920)과 안드레아스 에카르트(Eckardt, P. Andreas)의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 Zwischen Halla- und Paktusan(Oberbayern : Missionsverlag St. Ottilie, 1928)*에 실렸다는 사실은 일찍이 알려졌다.²¹⁾ 2010년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설화집 관련 최근 연구와 영인본 출간, 번역서 출간으로 <두더지(쥐) 혼인> 설화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新日本教育昔噺』(東京:敬文館, 1917)에 실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²²⁾ 한편 두 명의 일본인 민속학자와 한 명의 독일인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에 앞서 『은자의 나라, 한국 *Corea, the Hermit Nation*(1882)』의 저자이자 '일본학 연구에 기반한 한국학자'로 알려진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William E. Griffis²³⁾의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에 <두더지(쥐) 혼인> 설화가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²⁴⁾ 이 사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출간된 영문 한국 설화가 한국 설화의 이본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연구한 오윤선의 논문에서 처음 알려졌다.²⁵⁾

21) Choi in-hak,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 Myong Gi University Publishing., 1979, p. 16; 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277~278쪽.

22) 김광식·이시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조선민간 전승 『조선동화집』 고찰」, 『일본연구』 55,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김광식·이시준 공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다카기 도시오 지음, 권혁래·조은애 옮김, 『해학과 미학의 한국 옛이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23)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는 1870년부터 일본에 건너가 동양학 연구를 시작했고 3년 여간 일본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한국학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에 두 번 방문했다고 한다. 1차 방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2차는 1926~1927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신복룡 옮김,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8~12쪽)

24) William E. Griffis,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이 책은 1922년에 *Korean fairy tales*로 재출간되었다. 필자는 오윤선의 논문(2014)을 접하기 이전 '옛이야기와 다매체연구소'의 김환희 선생님을 통해 윌리엄 그리피스의 설화집에 <두더지(쥐) 혼인> 설화("A Bridegroom for miss mole")가 실렸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1911년 자료도 제공받았다. 지면을 빌려 김환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5) 오윤선, 「19세기 말~20세기 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화연구』 41집, 우리문화회, 2014.

한문으로 기록된 17세기 고문헌에 소개된 <두더지(쥐) 혼인> 이후 1900~1920년대에 외국인들에 의해 영어와 일본어, 독일어로 기록된 <두더지(쥐) 혼인>이 ‘조선 설화’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1911), 다카기 도시오(1917), 야마사키 겐타로(1920), 안드레아스 에카르트(1928)의 순서로 설화집이 간행되었다. 이들 중 한국 근대 아동문학 형성기라 할 1900~1920년대 초, 즉 최남선과 방정환의 <두더지(쥐) 혼인> 동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설화집은 출간 시기를 고려할 때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다카기 도시오, 야마사키 겐타로의 조선설화집 3권이다. 세 권의 책에 실린 이야기를 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00~1920년대 외국인들의 조선설화집에 실린 <두더지(쥐) 혼인>

번호	화소	William E. Griffis, "A Bridegroom for miss mole", <i>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i> ,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 「土龍の嫁入」, 『新日本教育昔噺』, 東京:敬文館, 1917 ²⁶⁾	야마사키 겐타로(山崎源太郎), 「鼠の婚禮」, 『朝鮮の奇談と傳説』(ウツボヤ書房, 1920)
1	사는 곳	킹인(Kingin) 강 옆 들 미륵 아래	동쪽 계곡에서 서쪽 계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중턱에 있는 커다란 지장보살 석불 아래	×
2	부모	두더지와 그의 아내	두더지 내외	들쥐
3	자식	딸	딸	딸
4	차림새	×	×	×
5	배우자 조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	천하제일인 자
6	하늘	○ 위대한 파란 하늘 “광대한 푸른 빛 옷을 입은 하늘”	×	○
7	해	○ 태양	○	×
8	달	×	×	×
9	구름	○ (구름/먹구름)	○ (먹구름)	○
10	바람	○	○	○
11	벽	×	×	×
12	산	×	×	×
13	돌상석불	○ (미륵)	○ (지장보살 석불)	○ (경기도 과천시 과천읍의 석불(미륵))

14	두더지	○	○	
15	쥐			○ (들쥐: 野鼠)
16	비교	이웃과 두더지 왕을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에 대해 물음	친척들은 해가 가장 힘센 자이나 눈이 부서 죽어버릴거라 만류함. 집으로 돌아간 부모가 딸의 의사를 물으니 두더지에게 시집가고 싶다고 함.	제목 「쥐의 혼례」 옆에 '모국담(母國談) 그대로'라고 표기함 "이 이야기도 내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로 시작함.

먼저,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와 다카기 도시오가 소개한 설화에서는 딸의 신랑감을 찾아나서는 존재가 '두더지'로 설정되어 있고, 작품의 서두에 두더지가 사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와 달리 야마사키 겐타로의 경우 '들쥐'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두에 사는 곳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딸의 신랑감(배우자) 중에 설화에 따라 '하늘-해-달'은 주로 셋 중 하나만 선택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리피스의 경우 '하늘'과 '해'가 모두 제시된 것이 특이점이다. '구름'과 '바람'은 거의 모든 설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화소이며, '벽-산-돌상(석불)'은 나라나 지역별로 전승 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 되는, 즉 하나만 선정되는 화소이다. 그리피스의 경우는 '돌상' '미륵'으로, 다카기 도시오의 경우는 '지장보살 석불'로, 야마사키 겐타로의 경우는 '과천의 석불'로 지역이 특정되었다. 세 편 모두 한국 설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석불(돌상)'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의 비교에서도 밝혔지만 다카기 도시오가 소개한 설화에서는 마지막에 두더지 부모가 딸에게 신랑감으로 누가 좋은지를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 설화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도의 『판

26) 작품은 권혁래·조은애 옮김, 『두더지의 혼인』, 앞의 책을 참조하였다.

다카기 도시오는 「일한 공통의 민간설화 日韓共通の民間説話」를 『동아시아광(東亞之光)』 7권 11호(1912)에 실었고, 이것을 1917년 단행본 『신일본교육민담(新日本教育昔噺)』(東京: 敬文館, 1917)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조선동화집 조선민간전승'을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에 1913년 2월 2일~1914년 1월 28일까지 연재하였는데, 「두더지의 시집가기 田鼠の嫁入」는 「일한 공통의 민간설화」(1912)에도 실렸고 『조선동화집 조선민간전승』이라고 밝히고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1913. 8. 8.~8. 9에도 발표했던 작품이다. (김광식·이시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조선민간전승 『조선동화집』 고찰」, 『일본연구』 5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김광식·이시준 공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181쪽, 199~200쪽 참조)

차탄트라』의 「암쥐 이야기」에서 딸쥐가 자신의 신랑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던 특성이 민간 전승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야마사키 겐타로는 조선과 일본의 유사 설화를 통해 ‘내선일체’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던 민속학자였던 만큼 그는 「쥐의 혼례 鼠の婚禮」에서도 “이 이야기도 **내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모국담 [일본 이야기] 그대로”임을 강조하였다. 주인공이 ‘들쥐’로 설정된 점, ‘하늘-해-달’ 중 ‘하늘’로 설정된 점, ‘과천 석불’이라 특정한 점을 볼 때 야마사키 겐타로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기본 출처로 삼아 이 설화를 소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가 소개한 설화에서 첫째, ‘하늘’과 ‘해’가 모두 설정된 점, 둘째, ‘하늘’을 설명할 때 “위대한 파란 하늘” “광대한 푸른 빛 옷을 입은 하늘”이라고 하여 하늘을 “푸른 옷을 입”었다고 의인화한 점은 다른 설화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다. 이 두 부분은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4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그리피스는 이 설화에서 신랑감으로 ‘돌상(석불)’을 제시할 때 다카기 도시오의 ‘지장보살 석불’이나 야마사키 겐타로의 ‘과천의 돌미륵’처럼 ‘미륵’으로 언급했는데, 방정환처럼 ‘은진미륵’이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삽화에서 면류관 형태의 보관(寶冠)을 쓴 거대한 ‘미륵’의 모습을 한 돌부처를 제시해, ‘은진미륵’이 연상된다.

4. 1900~1920년대 한·일 ‘동화’ 〈두더지(쥐) 혼인〉

1900~1920년대에 한국에서 ‘동화’로 소개된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는 최남선이 펴낸 1910년대 아동잡지 『아이들보이』와 방정환이 펴낸 1920년대 아동잡지 『어린이』에 실린 두 작품을 들 수 있다. 해당 시기의 신문과 잡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 두 잡지에 실린 작품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아이들보이』에 소개된 「쥐 시집감」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다.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펴낸 아동잡지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의 무기명 글 대부분은 학계에서 최남선이 쓴 것으로 논의되는 바, 이 글도 최남선이 다시쓰기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1900~1920년대에 <두더지(쥐) 혼인> 이야기를 다룬 일본의 동화들은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쥐 시집 보내기 鼠の嫁入」(『日本昔噺』, 博文館, 1896; 『改訂袖珍 日本昔噺』, 博文館, 1908년 초판; 1922년 22판), 마츠모토 쿠미(松本苦味)의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土龍の婿選び)」(『세계동화집 보물배 世界童話集 たから舟』, 大倉書店, 1920), 미야하라 고이치로(宮原晃一郎)의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土龍の婿選び)」(『赤い鳥』, 赤い鳥社, 1921년 8월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마츠모토 쿠미의 『세계동화집 보물배』에 수록된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는 ‘세계 동화’ 중 이 이야기를 ‘조선 동화’로 소개했다. 미야하라 고이치로의 작품도 192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잡지 『아카이토리』에 발표한 만큼, ‘동화’로 소개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5편의 작품을 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00~1920년대 한·일 ‘동화’ <두더지(쥐) 혼인> 비교

번호	화소	한국		일본		
		무기명 (최남선), 「쥐의 시집감」 (『아이들보이』 13호, 1914, 10)	방정환, 「두더지의 혼인」 (『어린이』 1924. 1)	이와야 사자나미 (巖谷小波), 「쥐의 시집감 鼠の嫁入」 『日本昔噺』 제24권, 1896; 『改訂袖珍 日本昔噺』, 博文館) 1908 초판; 1922, 22판	마츠모토 쿠미(松本苦味),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 (土龍の婿選び)」 (『조선 동화』, 『세계동화집 보물배 世界童話集 たから舟』, 大倉書 店), 1920	미야하라 고이치로 (宮原晃一郎),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 土龍の婿選び」, 『赤い鳥』, 1921년 8월호 ²⁷⁾
1	사는 곳	어느 곳 지체 좋은 양반집	충청도 온진미륵 근처 땅속	어떤 곳 유복한 집	금은의 냇가 바위의 커다란 석산 근처	변두리 풀이나 밭 귀퉁이에 출몰
2	부모	아버지-쥐 신랑 선호 어미-자기 겨레 업신여김 (별님 선호) 내의 싸움.	멍두더지 ²⁸⁾ 내외	아버지 쥐 (츄베에)	두더지 부부	(두더지 부부)

3	자식	딸	딸	딸(오츄)	딸	딸
4	차림새	×	아버지가 보통이, 지팡이 짚고 떠남	×	×	×
5	배우자 조건	×	세상천지 제일 높고 제일 윗자리 가는 것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	삼천 세상 중 가장 훌륭한 자	×
6	하늘	×	○	×	○	×
7	해	○	○	×	○	○
8	달	×	×	○	×	×
9	구름	○	○	○	○	○
10	바람	○	○	○	○	○
11	벽	○	×	○	×	×
12	산					○
13	돌미륵	×	○ (충청도 은진미륵)	×	○ (석상)	×
14	두더지	×	○	×	○	○
15	쥐	○	×	○ (자기네 상점 점원 쥐 츄스케)	×	×
비고	부정적인 이미쥐	‘은진미륵’ 특정함. 해학적	이웃 쥐들 중에서 선택하려 했음	해학적	아이를 버린 나쁜 엄마가 저주를 받아 두더지가 되었다는 유래담 배경.	

최남선이 다시쓰기 한 것으로 추정되는 「쥐 시집감」(『아이들보이』 13호, 1914. 10)에는 한국의 고문헌인 『효빈잡기』나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의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두 이야기에서 ‘두더지’ ‘들쥐’가 주인공인데 최남선의 이야기는 ‘쥐’로 설정된 점, 우리 이야기의 경우 구혼 대상으로 ‘돌부처’ ‘석상’ ‘미륵’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와 달리 빈도수가 높지 않은 ‘벽’으

27) 미야하라 고이치로의 작품은 박종진의 논문에서 “신령님을 먹은 남자”가 수록된 『아카이토리』 제 7권 2호에는 이밖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두더지의 사위 찾기」, 「그리스로마신화」, 「아라비안 나이트」 등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작품 수록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박종진, 「방정환 번역동화 「귀신을 먹은 사람」 저본 연구 - 『赤い鳥』의 「神様を食べた男」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4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21, 42쪽).

28) ‘땅두더지’는 ‘땅강아지’의 강원도 사투리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방정환이 ‘두더지’라고 해야 할 것을 ‘땅두더지’로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로 설정된 점도 특이 사항이다. 더욱이 이 이야기에서 쥐 아버지는 딸의 배우자로 쥐를 선호했지만 쥐 어머니는 “자기 겨레를 업신여겨” 처음에 별을 사위로 삼겠다는 등 허황된 과욕을 부려 내외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풍자적으로 기술한 부분도 특이점이다.

옛날 어느 곳에 쥐 내외가 있으니 이 쥐는 쥐누리에서 지체가 매우 좋은 한 골양반입니다. 딸 하나를 두었으니 얼굴과 재주가 저의 가운데 으뜸이라 어이²⁹⁾의 귀애함이 그지 없어 아끼는 것 없이 온갖 공부까지 시키니 애쓴 값이 나서 자라는 대로 점점 지체가 늘어 단단한 나무도 잘 썰고 높다란 데를 까딱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조고만 소리만 들어도 곧 쪼르르 달아난다든지 하는 재주로는 이 작은 아씨 따를 이가 그 근처에는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털의 야드름함과 의의 흰 구슬 꾸민 듯함과 주둥아리의 어여쁨이 하늘에서나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어버이가 늘 아무리 하든지 딸만 못하지 아니 한 사위를 골라 장하게 혼인을 지낼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거북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죽이나 속이 다 쥐로 생긴지라 제 딸도 다만 저의보담 지체나 더 좋고 나뭇이나 길고 등에 살이나 다부룩진 얹전한 쥐를 얻어 사위 삼으려 하는데 어머니는 아주 생각이 다릅니다. 이 어머니 되는 이는 미리부터 저의들의 겨레를 업신여기는 터이므로 이리 잘난 딸을 어찌 그저 쥐에게 시집보내고 말랴 하는 생각으로 사윗감을 찾습니다. 이 까닭에 이 일로 하여야 침부터 저녁까지 내외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다 시피하고 그저 싸움만이 아님은 가끔 들의 낮에 징그러운 핏자국이 남으로써 알겠습니다. ((무기명), 「쥐의 시집감」, 『아이들보이』 13호, 신문관, 1914. 10, 6~7쪽)

작가가 독자에게 종족 또는 민족주의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쥐 어머니를 “저의들의 겨레를 업신여기는 터”라고 부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29) ‘어이’는 짐승의 어미라는 뜻도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딸을 귀애했고 뒤에 어버이라는 말이 나와 어버이의 오식으로 추정하였다.

맹상염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쥐’나 ‘벽’, 아버와 달리 자기 종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어미의 설정 등은 우리 이야기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승되는 구전설화에서 많이 나온다.³⁰⁾ 최남선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승되는 설화의 영향을 받고 다시쓰기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최남선이 신문관(新文館)에서 발행한 잡지『소년』이 이와야 사자나미가 하쿠분칸(博文館)에서 발행한 잡지『소년세계(少年世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되는 것처럼³¹⁾, 『쥐 시집감』은 1908년에 초판이 나온 이와야 사자나미의 『쥐의 시집 鼠の嫁入』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제목도 유사하며 ‘쥐’ ‘벽’이라는 화소도 동일하고 쥐가 사는 곳으로 “어떤 곳 유복한 집”(이와야 사자나미)과 유사하게 “지체가 매우 좋은 한 골 양반”(최남선)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최남선이 이와야 사자나미의 작품을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았더라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최남선이 우리의 옛이야기보다는 일본의 옛이야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ATU 2031C형으로 소개된 아프리카 민담 「딸 쥐의 남편 The Husband of Rat's Daughter」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옛날 일본에 쥐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늙고 고귀한 종족이었고, 쥐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에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나무를 갉아먹는 것만큼 영리하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침대 위에 떨어질 수 있고, 누가 오는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짧은 아가씨는 온 마을에 또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모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그녀의 피부는 새틴처럼 빛나고, 그

30) 맹상염이 중국의 관련 설화 각편 23편을 대상으로 구혼 대상 화소를 정리한 것을 참고하면, **중국 이야기에서는 ‘벽’이 18편을 차지**한다. ‘벽’을 대체하는 대상으로 ‘돌’이 1편, ‘산’이 3편, ‘만리장성’이 1편인데, ‘만리장성’도 일종의 ‘벽’이라 본다면 19편이다(맹상염, 『한·중 ‘쥐 혼인’ 설화의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논문, 2013, 76~77쪽).

31) 이재철, 『한일 아동문학의 비교 연구(1)』, 『한국아동문학연구』 1, 한국아동문학학회, 1990; 오타케 키요미, 『근대 한일 아동문학교육 관계사 연구(1895~1945)』,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진은경, 『최남선과 이와야 사자나미의 ‘소년상’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62집, 우리어문학회, 2018.

녀의 치아는 진주처럼 하얗고 아름답게 뽀족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장점에 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화려한 결혼생활을하기를 기대했고, 그녀가 자라면서 적합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코끝부터 꼬리 끝까지, 겉과 속이 모두 쥐 같았고, 자기 딸이 동족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연인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고요한 희망을 콧수염이 거의 땅을 휩쓸고 있는 아름답고 어린 쥐에게 달려 있었는데, 그가족은 여전히 그의 가족보다 더 고귀하고 오래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소중한 아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가족과 주변 환경을 경멸하고 자신이 세상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결코 단순한 쥐새끼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것보다 낮기를 조금 찾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 누구에게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에 대해 그녀가 생각한 것은 쥐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늙은 쥐와 그의 아내는 말다툼을 많이 했고, 때로는 얼굴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민담 「딸 쥐의 남편」)³²⁾

흥미롭게도 아프리카 민담에서는 이 이야기가 '일본'에서 전해진 이야기인 것처럼 "옛날 일본에 쥐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로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겉과 속이 모두 같은 종족인 쥐를 사윗감으로 맞이하고 싶어하지만 어머니 쥐는 "항상 자신의 가족과 주변 환경을 경멸"하는 성격으로 최남선의 「쥐의 시집감」에서처럼 사윗감으로 '별'을 선호하였다. 쥐 부부의 싸움이 끊이

32) 각주 18번 참조.

아프리카 민담은 미주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guides.missouri.edu/c.php?g=1083510> 참조.

지 않았고, 때로는 얼굴에 흔적(뿔자국)을 남겼다는 표현도 놀랍게도 유사하다. 더욱이 구혼 대상자로 ‘태양-구름-바람-벽-쥐’로 설정된 것도 동일하다. 우리의 구전 설화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벽’이 화소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볼 때 최남선의 「쥐 시집감」은 우리의 문헌설화인 『효빈잡기』나 『어우야담』 『순오지』 등에 실렸던 〈두더지(쥐) 혼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일본 설화, 또는 이와야 사자나미의 옛이야기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보이』에 소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겨레를 업신여기’는 어머니 쥐의 부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종족 우월주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심어주려는 최남선의 생각이 일본에서 전승되는 설화와 맞아떨어지면서 번역 과정에서 더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계 설화들과 달리 우리의 설화에서 주로 발견되는 민족적 특수성이라 할 중요 화소인 ‘돌부처(돌미륵)’가 아닌 중국이나 일본 설화에 많이 등장하는 ‘벽’이 중요 화소였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에 실린 「두더지 婚姻」(1926)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 교과서는 이 이야기의 출처를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 밝혔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두더지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그린 부분, 두더지 내외가 그 때문에 내외 싸움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어머니는 별님이나 달님을 선호했다는 부분 등 일본 설화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민담과 최남선의 「쥐의 시집감」과 더 유사하다.³³⁾ 다만 최남선의 이야기에서 ‘벽’을 ‘돌미륵’으로, ‘쥐’를 ‘두더지’로 변형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조선총독부 교과서의 「두더지 婚姻」은 최남선의 다시쓰기 작품이 지닌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방정환이 다시쓰기 한 「두더지의 혼인」(『어린이』 1924. 1)은 쥐의 해를 맞아 『어린이』에 소개한 이야기로 발표 당시에 ‘동화’로 소개되었다. “충청도

33) 권덕규가 펴낸 『조선어문경위(朝鮮語文經緯)』에도 「두더지 혼인」 이야기가 실렸는데, 출처를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 밝혔다. 이 자료는 기존 설화 연구에서 누락되어 있다. 권덕규의 「두더지 혼인」의 내용은 조선총독부 교과서에 실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권덕규는 이야기의 말미에 “이는 제 분수를 모르고 주제에 넘는 일 하는 것을 경계함이라라”라고 주제를 밝혔다. (권덕규,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1923, 155쪽)

은진이라는 시골에 은진 미력이라는 굉장히 큰 미륵님³⁴⁾이 있다며 그 크기를 거론하고 그 근처 땅속에 땅두더지 내외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효빈잡기』나 『어우야담』에서 ‘돌부처’ ‘과천의 돌미륵’으로 되었던 것을 ‘은진미륵’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은진미륵의 거대한 크기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도록 “키가 60척 7촌”이나 된다고 언급하였다. 최남선과는 달리 방정환은 우리 설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화소 ‘돌부처’ ‘돌미륵’을 잇고 있다.

방정환 이전의 문헌설화집이나 외국인이 기록한 설화집 등에 ‘은진미륵’이라 특정된 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³⁴⁾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이 『어린이』에 발표된 이후 임석재가 채록한 구전설화나 정인섭의 설화집에서 ‘은진미륵’으로 특정된 이야기가 구전된 상황을 볼 때 방정환 동화의 영향이 아닐까 추정된다.³⁵⁾ 또한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에는 동시대의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이 친구 저 친구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첫째가게 잘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과정이 나온다. 구혼 대상으로 처음에 “**파란 하늘님**”을 언급하며 “**파란 돌매기를 입으신 하늘님**”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른 4편의 동화와 달리 “땅두더지 영감이 보통이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나는 구혼 여행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바리공주」 이야기에서 무쇠 신을 신고 무쇠 지팡이를 짚고 이계로의 여행을 하는 모습의 잔영이 남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34)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스의 설화집에서 ‘미륵’이라 했고, 삽화에 ‘은진미륵’ 모습과 유사한 돌부처를 그려 넣어 ‘은진미륵’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기록문학 중 방정환 이전에 ‘은진미륵’으로 특정된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35) 1932년 7월 전라북도 전주의 구연자 백남승으로부터 채록한 이야기(임석재, 『한국구전설화 - 전라북도 편 II』(제8권), 평민사, 1991, 327~328쪽); 1970년 경남 거제에서 25세 남자 구연자 옥만석으로부터 채록한 이야기(임석재, 『한국구전설화 - 경상남도 편 I』(제10권), 평민사, 1993, 344쪽); 1945년 서울 구연자 정미옥이 구연한 것을 정리한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1952, pp.184~186)

36) 「바리공주」를 비롯한 세계 설화에서 무쇠 신과 무쇠 지팡이가 이계 여행의 주요 도구이자 상징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환희, 「유럽의 뱀신랑 색시와 한국의 바리공주가 무쇠 신을 신고 떠난 이계여행」, 『옛이야기 공부법』, 창비, 2019 참조.

김환희는 “『쥐의 사위 삼기』 「두더지 사위」 「구복 여행」 따위의 우리나라 옛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해를 만나기 위해 하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쇠 지팡이를 장만한다. 우리 민족도 쇠 지팡이가 많도록 걸으면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상상했던 듯싶다.”로 밝힌 바 있다.³⁷⁾ 방정환이 그러한 설화의 특정 화소가 지닌 상징성을 온전히 이해했던 것은 아니고, 오랜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아버 두더지에게 투영하기 위해 ‘보통이’와 ‘지팡이’를 설정했다고 보인다. ‘하누님-해님-구름-바람-은진미륵-두더지’로 구혼 대상자를 찾아 떠나는 두더지의 힘겨운 여정을 표현할 때마다 방정환은 “두더지 영감은 하누님께 하직하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해님께로 찾아가서”라고 하거나 “인제 두더지 영감은 고단하여서 기운이 지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더허덕 지팡이를 끌고 자기 시골로 돌아와서 미력님께로 간신히 갔습니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처럼 방정환은 구전설화를 어린이용 동화로 만드는 과정, 즉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에 전래동화라는 장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성격 창조에 공을 들이면서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하였다. 구름이나 바람을 대면하기 전에 느끼는 두더지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등 구체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현은 최남선의 서술이나 이와야 사자나미, 그리고 미야하라 고이치로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를 ‘조선 동화’라고 소개한 마츠모토 쿠미의 작품에서는 아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야 사자나미, 마츠모토 쿠미, 미야하라 고이치로의 작품은 모두 시기적으로 볼 때 방정환이 『어린이』에 「두더지의 혼인」을 발표하기 전에 발표되었다. 게다가 방정환은 번역동화집 『사랑의 선물』(개벽사, 1922)에 이와야 사자나미가 세계 옛이야기로 소개한 「魔王 ア、」를 「요술 왕 아아」로 변안해 실었으며³⁸⁾, 미야하라 고이치로의 작품이 발표된 『아카이토리』의

37) 김환희, 위의 책, 177쪽.

38) 엽희경, 「민족주의의 내면화와 ‘전래동화’의 모델 찾기 -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2)」, 『한국학연구』 1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엽희경, 『소과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4; 李延炫, 「巖谷小波のお伽噺から方定煥の近代童話へ - 方定煥の翻譯童話『妖術王』

해당 호에 실린 「神様を食べた男」를 「귀신을 먹은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했다.³⁹⁾ 특히 이와야 사자나미의 『改訂袖珍 日本昔噺』(博文館)는 1908년에 초판을 발행하고 1922년에 22판을 발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작품집이라 방정환이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방정환이 「두더지의 혼인」을 다시쓰기 하기 전에 세 사람이 쓴 이야기를 모두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중 마츠모토 쿠미의 작품과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앞에서도 밝혔듯 구혼 대상자 화소 중에 ‘하늘-옥황상제-태양(해님)’은 대체로 하나만 선정하지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방정환의 작품과 마츠모토 쿠미의 작품에서는 모두 ‘하느님’과 ‘해님’이 동시에 등장한다. 게다가 방정환은 “하느님” “파란 돌매기를 입으신 하느님”이라고 표현했고, 마츠모토 쿠미는 “창공” “연 파랑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마츠모토 쿠미의 작품에서도 방정환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두더지 아버지가 딸의 사위감을 찾아나설 때 “우선 근처 일대의 친구 집에 가서 상의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방정환과 마츠모토 쿠미의 작품에서 ‘하늘(하느님/창공)’과 ‘해님’이 모두 등장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구인지 상의하는 장면이나 구름을 만나러 가기 전에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 점, 바람의 성격에 대한 걱정, 석상(미륵)을 괴롭히려는 바람의 행동 등이 거의 유사하게 서술되었다. 이렇게 볼 때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의 저본은 우리의 옛 문헌설화나 어린 시절 들었던 구전설화가 아니라 마츠모토 쿠미가 ‘조선동화’로 소개한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 (土龍の婿選び)」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단 마츠모토 쿠미의 작품을 저본으로 삼아 다시쓰기 하는 과정에서도 방정환은 ‘금은의 냇가를 따라 하나의 커다란 석상이 서 있었다’는 첫 시작 부분을 ‘충청도의 은진미륵’이라는 ‘조선’의 특정 장소, 특정 돌상으로 변형하였다. ‘조

アアの比較研究, 『梅花兒童文學』18호, 梅花女子大学大学院兒童文学会, 2010; 이정현, 『방정환 번역동화 연구 - 『사랑의 선물』을 중심으로』, 청동거울, 2023; 김환희, 「방정환의 「요술 왕 아아」에 나타난 개작 양상과 의미 - 이와야 사자나미의 「마왕 아아」와 라우라 곤첸바흐의 「아아 이야기」와의 비교」, 연구모임 작은물결 지음, 『새롭게 다시 읽는 『사랑의 선물』』, 청동거울, 2024.

39) 김경희, 「방정환 「귀신 동화」의 형성과 의미 연구」, 『국문학연구』32호, 국문학회, 2015.

선 동화’의 민족적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주려고 고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츠모토 쿠미의 서술보다는 좀 짧게 간추린 형태로 번역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마츠모토 쿠미의 「土龍の婿選び」는 3장에서 살피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조선설화집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에 수록된 “A Bridegroom for miss mole”을 저본으로 한 번역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⁴⁰⁾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1911), 마츠모토 쿠미(1920), 방정환(1924)의 <두더지(쥐) 혼인>을 화소별로 정리하면 거의 모든 화소가 유사하다. 단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에서만 신랑감을 찾아나설 때의 차림새가 나오고, 사는 곳을 ‘충청도 은진미륵’으로 특정한 점만이 다를 뿐이다.

[표 3]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1911), 마츠모토 쿠미(1920), 방정환(1924) <두더지(쥐) 혼인> 화소

번호	화소	William E, Griffis, 쥐 색시의 신랑 (A Bridegroom for miss mole), 『은혜 모르는 호랑이와 그밖의 조선 이야기 <i>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i> 』,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마츠모토 쿠미(松本苦味), 「두더지의 사위 고르기 (土龍の婿選び)」 (조선 동화), 『세계동화집 보물배 世界童話集 たから舟』 오쿠라서점(大倉書店), 1920	방정환, 「두더지의 혼인」(『어린이』 1924. 1)
1	사는 곳	킹인(Kingin) 강 옆 돌 미륵 아래	금은의 냇가 바위의 커다란 석상 근처	충청도 은진미륵 근처 명숙
2	부모	두더지와 그의 아내	두더지 부부	땅두더지 내외
3	자식	딸	딸	딸 (얼굴 예쁘고 얇전)
4	차림새	×	×	아버지가 보통이, 지팡이 짚고 떠남

40) William E, Griffis,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킹인강(river kingin)의 돌상, 미륵, ‘위대한 과란 하늘’ ‘광대한 푸른 빛 옷을 입은 하늘’ ‘태양의 등장, 구름과 바람에 대한 서술도 유사함, 두더지 영감의 장황한 말에 미륵이 인내를 하며 듣는다고 하는 표현도 유사함.

5	배우자 조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삼천 세상 중 가장 훌륭한 자	세상천지 제일 높고 제일 위자리 가는 것
6	하늘	○ 위대한 파란 하늘 “광대한 푸른 빛 옷을 입은 하늘”	○ (창공: 연 파랑 옷을 입고)	○ (하늘: 파란 두루매기 하누님)
7	해	○ 태양	○	○
8	달	×	×	×
9	구름	○ (구름/떡구름)	○	○
10	바람	○	○	○
11	벽	×	×	×
12	산	×	×	×
13	돌상 (석불)	○ (미륵)	○ (석상)	○ (은진미륵)
14	두더지	○	○	○
15	쥐	×	×	×
16	비교	이웃과 두더지 왕을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에 대해 물음	근처 일대의 친구 집에 가서 상의함	만나는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첫째가는 잘난 것을 물음

1900~1920년대 외국인들의 조선설화집에 실린 설화의 화소를 정리한 [표 1]과 1900~1920년대의 한·일 '동화'의 화소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마츠모토 쿠미, 방정환 이야기의 화소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앞에서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의 설화를 언급할 때 특히 사항이라 밝혔던, '하늘-해'의 화소 선정과 하늘을 “광대한 푸른 빛 옷을 입은 하늘”(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연 파랑 옷을 입고”(마츠모토 쿠미), “파란 돌매기(두루매기의 사투리)를 입으신 하누님”(방정환)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도 동시대의 조선설화집과 한·일 '동화'들 중에서 이 세 작품뿐이다.

따라서,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의 조선설화집에 실린 “A Bridegroom for miss mole”을 마츠모토 쿠미가 참고해 『土龍の婿選び』로 번역해 ‘세계동화집’에 ‘조선동화’로 실었고, 방정환은 마츠모토 쿠미의 ‘세계동화집’에서 ‘조선동화’로 소개된 이 이야기를 선정해 ‘석상’을 ‘은진미륵’으로 특징하여 조선적 색채를 덧보태고 도입부에서 구술적 전통을 살려 잡지 『어린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의 변형을 가하고 부분적으로 간결하게 번역하거나 어느 부분은 성격 창조에 변화를 가하는 등 변용하여 「두더지의 혼인」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세 작품의 구체적 형상화에 대한 정밀한 비교 분석은 차후 별도의 과제로 남긴다.

5. 나가며: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 ‘전래동화’ 장르 형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

〈두더지(쥐) 혼인〉 설화는 인도에서 발생해 세계적으로 퍼진 광포설화로 누적적 형식담이라는 특성 때문에 서사에 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소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몇몇 화소에서 각 나라별 특성을 반영한 변용이 이루어진 설화이다. 이렇게 볼 때 인도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제외한 세계의 이야기들은 **인도 이야기의 번역·번안·다시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각 나라에 일찍이 전파되어 정착·토착화되면서 민족적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변용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후대에는 고유의 민족적 색채와 정신이 깃든 자신들의 민족 설화로 인식하며 전승되었을 것이다.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은 우리 설화(‘조선의 동화’)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선정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옛 문헌설화나 구전설화를 ‘다시쓰기’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미국인 선교사이자 동양학자가 수집 각색해 영어로 기록한 ‘조선 설화’를 일본인 번역가이자 동화 작가가 선정하여 일본어로 번역해 ‘조선 동화’라고 소개한 것을 다시쓰기의 저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이야기의 원래 언어인 한국어로 재번역·번안하여 우리의 어린이 독자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로 소개한 것이다. 방정환이 「두더지의 혼인」을 ‘조선 동화’(조선 옛이야기)로 인식했고 강조했다는 사실은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충청도 은진미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데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인도, 중국, 일본의 설화나 이와야 사자나미나 미야하라 고이치

로와 같은 일본 작가들이 소개한 동화와 달리 방정환이 우리 옛이야기의 해학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이 반영된 '돌상(미륵)'이라는 화소를 잘 담아낸 마츠모토 쿠미의 '조선 동화'를 다시쓰기의 저본으로 삼았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양의 외국인 선교사, 일본인 민속학자, 일본인 동화 작가의 손을 거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설화를 복원·기록·전승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우울한 초상이 드러나는 시대였으나, 우리 설화의 민족적 특징을 잘 살린 저본을 선정해 그것을 토대로 다시쓰기 하여 우리 설화의 생명력이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돋보인다. 일본 이야기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최남선이 다시쓰기 한 동화나 권덕규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반영한 듯한 조선총독부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아니라 방정환이 다시쓰기 한 「두더지의 혼인」이 임석재가 채집한 구전설화나 『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설화들에 더 영향을 끼치며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방정환의 「두더지의 혼인」은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에 '전래'와 '번역'의 교차 상황에서 탄생한 '다시쓰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쓰기'의 방법과 수단, 과정은 '번역' 동화의 형태였으나 그 번역의 목적과 동기, 이야기의 원천(조선의 옛이야기)에 대한 인식은 '전래' 동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정환은 그 당시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많은 설화를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재번역 번안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아동문학 형성기에 어린이용 '전래동화' 장르를 개척해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시쓰기'의 귀재였던 방정환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옛이야기와 외국의 옛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교 설화 연구와 번역 문학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1900~1920년 한·일 <두더지(쥐) 혼인> '동화' 비교 연구이지만 이야기를 화소별로 정리해 주요 특성만을 살폈을 뿐 한·일 동화의 작가별 특성과 개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지는 못했다. 또한 해당 시기 한·일 동화 텍스트를 폭넓게 수집해 비교 연구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한·일

아동문학 비교 연구에서 ‘소파(小波)’라는 호 때문에 이와야 사자나미와 방정환의 영향 관계, 연관성이 자주 거론되어 온 만큼 이와야 사자나미가 다시 쓰기 한 「鼠の嫁入」과 방정환이 다시쓰기 한 「두더지의 혼인」 두 작품에 대한 정밀한 비교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관련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자료

- 고상안 지음, 김남형 역주, 『국역 효빈잡기』, 계명대학교출판부, 2007.
- 권덕규,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1923.
- 김정설, 『평양전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어우아담』,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8권(전라북도 편 II), 평민사, 1991; 『한국구전설화』 10권(경상남도 편 I), 평민사, 1993.
- 조선총독부, 『신편고등조선어급 한문독본』 5권, 조선총독부, 1926.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web>)
- 판디트 비쉬누 사르마 지음, 찬드라마니 영역, 서수인 옮김, 『판차탄트라』, 태일출판사, 1996.
- 松本苦味, 『土龍の婿選び』, 『世界童話集 たから舟』, 大倉書店, 1920.
- 宮原晃一郎, 『土龍の婿選び』, 『赤い鳥』, 赤い鳥社, 1921년 8월호.
- 巖谷小波, 『鼠の嫁入』, 『日本昔噺』, 博文館, 1896; 『改訂袖珍 日本昔噺』, 博文館, 1908년 초판; 1922년 22판.
- William E. Griffis,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7.
-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London University, 1952.

2. 단행본

-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 _____, 『아마사키 겐타로와 『조선의 기담과 전설』, 아마사키 겐타로 지음,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자, 『조선의 기담과 전설』, 제이앤씨, 2014.
- 김환희, 『옛이야기 공부법』, 창비, 2019.
- _____, 『방정환의 「요술 왕 아아」에 나타난 개작 양상과 의미 - 이와야 사자나미의 「마왕 아아」와 라우라 곤첸바흐의 「아아 이야기」와의 비교』, 연구모임 작은물결 지음, 『새롭게 다시 읽는 『사랑의 선물』』, 청동거울, 2024.
- 다카기 도시오 지음, 권혁래·조은애 옮김, 『해학과 미학의 한국 옛이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 무주 이치엔 지음, 정천구 옮김, 『모래와 돌』, 소명출판, 2008.
- 염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14.
-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신복룡 옮김,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 이정현, 『방정환 번역동화 연구 - 『사랑의 선물』을 중심으로』, 청동거울, 2023.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지음, 『100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창비, 2023.8.(초판 2쇄)
- Choi in-hak,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 Myong Gi University Publishing., 1979.

3. 논문

- 강영순, 「아담의 우연적 소통 고찰」, 『한민족어문학』 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297~324쪽.
- 김경희, 「방정환 '귀신 동화'의 형성과 의미 연구」, 『국문학연구』 32호, 국문학회, 2015, 247~277쪽.
- 김광식 · 이시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조선민간 전승 『조선동화집』 고찰」, 『일본연구』 5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73~95쪽.
- 김군태, 「'쥐(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 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37쪽.
- 김남형, 「태초 고상인의 『효빈잡기』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0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283~314쪽.
- 류정월, 「두더지 혼인 설화의 해석적 코드」, 『기호학연구』 40집, 한국기호학회, 2014, 53~84쪽.
- 맹상염(孟祥艷), 「한 · 중 '쥐 혼인' 설화의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논문, 2013.
- 박종진, 「방정환 번역동화 '귀신을 먹은 사람' 저본 연구 - 『赤い鳥』의 「神様を食へた男」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4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21, 21~47쪽.
- 염희경, 「민족주의의 내면화와 '전래동화'의 모델 찾기 -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2)」, 『한국학연구』 1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47~171쪽.
- _____,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옛이야기 분과, 「방정환 이야기의 맛과 힘」, 『동화 읽는 어른』, 어린이도서연구회, 1999.5.
- 오윤선, 「19세기말~20세기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학연구』 41집, 우리문학회, 2014, 145~179쪽.
- 오타케 키요미, 「근대 한일 아동문학교육 관계사 연구(1895~1945)」,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 이재철, 「한일 아동문학의 비교연구(1)」, 『한국아동문학연구』 1, 한국아동문학학회, 1990, 7~20쪽.
- 임유정,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설화 읽기 지도 방안 연구 - <두더지의 혼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진은경, 「최남선과 이와야 사자나미의 '소년상'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62집, 우리어문학회, 2018, 71~94쪽.
- 최미숙, 「옛이야기 그림책의 시각화 연구 - <방귀쟁이 며느리>와 <두더지(쥐) 혼인>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6.
-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인(印) · 중(中) · 한(韓) 비교 고찰」, 『어문연구』 48호, 어문연구학회, 2005, 301~326쪽.
- 琴榮辰, 「東アジアにおける「鼠の嫁入り」の享受」, 『日語日文學研究』 7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91~108쪽.
- 李延炫, 「巖谷小波の「お伽草子から方定煥の近代童話」へ-方定煥の翻譯童話『妖術王アア』の比較研究」, 『梅花兒童文學』 18号, 梅花女子大学大学院兒童文學会, 2010, 59~75쪽.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e Mole(rat) Marriage”, a ‘fairy tal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1900s and 1920s

Yeom Heekyung*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le(rat) Marriage”, a “fairy tal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1900s and 1920s, and aims to examine how the global universality and national specificity of the “The Mole(rat) Marriage” folktales were inherited and transformed into the “fairy tale” of Korea and Japan.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folktales into fairy tales, I first looked at the them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le(rat) Marriage” folktale recorded in ancient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Second, I looked at the motif of “Tales” in the “Korean folktales” of foreigners in the 1900s and 1920s, which influenced the “traditional fairy tale” of the forma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hird, five “fairy tales” of Korea and Japan in the 1900s and 1920s were organized by motif to examine their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During that period, it was possible to shed light on the specific aspects of rewriting folktales as “fairy tales” by Choi Nam-seon and Bang Jeong-hwan of Korea, and Iwaya Sajunami, Matsumoto Kumi, and Miyahara Koichiro of Japan. In particular, in this study, it was newly revealed that Bang Jeong-hwan’s “Marriage of the Mole” was a “traditional fairy tale” in which the motive for recognizing and rewriting the source of the story was a “traditional fairy tale,” and that the process of rewriting the book was a

* C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cturer

“translation fairy tale” in which linguistic transformation was achieved. In other words, Bang’s “Marriage of the Mole” is the product of rewriting, which combines the recognition of “traditional” and the process of “re-translation.” With the comparative study of fairy tales adapted from folktales, it is expected that the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Korean folktales collected and adapted by foreigners during the forma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will expand into a study on the impact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Key words: <Mole(rat) marriage>, ATU 2031C type, rewriting, William E, Griffis, Takagi Toshio(高木敏雄), Choi Nam-seon(崔南善), Bang Jeong-hwan(方定煥), Iwaya Sazanami(巖谷小波), Matsumoto Kumi(松本苦味), translated fairy tales, traditional fairy tales